

휴켄스, 독과점 지위로 안정적 수익

유화증권, 원료코스트 상승분 전가 쉬워 ... CDM 사업 초과이익 창출

유화증권은 8월28일 휴켄스에 대해 독과점 지위를 토대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매수 투자자의견과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유지했다.

이재원 애널리스트는 “휴켄스의 생산제품 가운데 7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독과점 시장을 영위하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시 제품가격으로 전가하기가 쉬우며 산업이 악화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산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규수익 창출과 비용통제를 통한 효율성 개선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휴켄스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초과이익 창출이 기대되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희황산 농축시설 건설로 황산 매입액과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켄스의 적정주가는 화학산업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CDM 사업이 화학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데다 2006년 턴어라운드와 예상돼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저작권
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8>